

# 정부 “이달 중 확진자 정점 20만명 전망”

### 휴가철 코로나 확산 빨라져

### 전망치 15만명서 다시 상향

### 우울위험군·자살생각률 급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량 등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확진자 정점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5만 1792명으로, 4달(119일) 만에 15만명대를 다시 돌파한 것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요인이 잠재돼있다”며 “질병청은 8월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18일 8월 중순~말 기준 확

진자 수 28만명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7월 말~8월 초 여름 휴가시즌이 본격화되고, 인구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다시 커짐에 따라 확진자 수 정점 역시 20만명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통계청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전국 이동량은 2억 6858만건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도 2.0%(534만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항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휴가철의 접촉 증가, 접촉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등이 이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기일 총괄조정관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 사례에는 평상시 감염관리자 부재, 병상간 거리 미확보, 확진자·비확진자간 동선 분리 미흡 등 공통점이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됐지만 우울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각각 5배, 3배 증가했다”며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상담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위축된 국민의 심리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급증세이기 하지만,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됐지만 우울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각각 5배, 3배 증가했다”며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상담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위축된 국민의 심리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위험군인 국민들께서는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손영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거듭되고 치료제 도입과 예방접종의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현재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며 “검사가 느슨해 ‘숨은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럴 경우 총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거듭되고 치료제 도입과 예방접종의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현재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며 “검사가 느슨해 ‘숨은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럴 경우 총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3년세 지방 인구 소멸 위험 더 커져 전남, 인구과소지역 2.59%p 늘어

###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최근 5년 사이 전남을 비롯한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며 소멸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고령화 등은 더 심해져 특단의 인구 분산 및 출산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국토조사 등을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리 데이터베이스(DB)’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리정보로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소지역을 5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18년(13.3%)에 비해 1.0%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18년 28.49%에서 2021년 31.08%로 2.59%p가 늘어 전북(2.64%p)에 이어 두 번째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에 이어 경북(2.15%p), 충북(1.97%p) 강원(1.46%p)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인 2021년 인구과소지역 면적 비율은 강원(38.61%), 경북(35.49%), 충북(34.17%), 경남

(31.97%) 등에 이어 5번째였다.

광주는 2018년 18.49%에서 2021년 18.26%로 0.23%p가 오히려 감소했다.

인구과소비율이 40% 이상인 전국 23개 시·군 가운데 전남의 시·군은 화순군(40.29%)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상위 15위 안에는 전남에서 고흥군(3위, 42.23%), 보성군(5위, 39.91%), 함평군(15위, 37.95%)이 들어갔다.

수도권 집중도는 2000년 46.3%에서 2021년 50.4%로, 20년간 4.1%가 증가했다. 노후주택(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주택)은 전남이 74.92%로 부산(83.85%), 대구(77.5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는 72.18%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격자단위 인구 분포 변화를 분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인구수 감소뿐 아니라 지역 내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정도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보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고 있다. 읍·면·동별 시설로부터 차량이동 20분(10km) 밖에 거주하는 취약인구 비율은 전남이 34.07%로, 경북(40.44%), 충남(37.78%)에 이어 세 번째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만나 핵심현안 지원 요청

###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제 도입

### 외국인근로자 인력 확보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및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장관을 만나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외교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호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해외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조선업과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 확보와 관련 “수주불량 확대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전담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오른쪽) 전남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는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요건을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은 확실히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섬진강권 영호남 지자체, 통합 관광벨트 조성

### 하동·구례·곡성·광양 참여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곡성군, 경남 하동군 등 섬진강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나섰다.

구례군 등 이들 지자체는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례군이 주관한 간담회에는 하승철 하동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이상철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기획예산과장, 관광진흥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4명의 시장·군수가 지자체 추

진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다 한다는 내용과 자원 확보 등 대정부 활동에 각 지자체가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4개 지자체는 2021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에 함께 선정되는 등 섬진강을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향후 섬진강권 통합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4개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여러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공인 신용관리사 직책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변,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개 강(개별과정)**  
일 시: 2022.9.13 (화) 오후7시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동로478-1:산수오거리 → 무동산병원입구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2개 강(강좌) (무료)**  
일 시: 2022.9.6 (화) 오후7시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과 중화
- 음력, 양력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1. 목 적**  
•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2. 8. 24.(수) 14: 00  
• 장 소: 여수시 문수지구 어울림센터 1동 2층, 문수동 75-1번지  
• 참석대상: 여수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30명 내외(선착순)  
• 공고기간: 2022. 8. 11. ~ 2022. 8. 2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내 용**  
• 마중물사업 12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  
• 부처연계사업 및 지자체사업 사업비조정  
• 공기업사업 계획 변경(제척)

**4. 기타사항**  
•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방문(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처: (우편) 여수시 시청동 1길 23, 도시재생과 재생정비팀 (전자메일) kw1212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061-659-4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장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축척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방동창고 200평 (방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8월14일(일)**  
▲광주신구산업회 8월14일(일) (지리산 칠성계곡 산행) 영주동 체육관 정문 07시 30분 에스엘명원 07시 35분 마래로21세기 07시 38분 서구청 07시 40분 농성역 6번출구 07시 45분 신세계백화점 옥교역 07시 50분 문예회관 후문 07시 55분 비엔날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 래주차장 도로변 08시 00 분 \*광주신구산업회 카페 광주호선회 ☎ 010-461-2166, 010-6702-9796 ☎ 010-6462-5014

**8월13일(토)**  
▲광주호선회 8월13일(토) (지리산 한신계곡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 래주차장 도로변 08시 00 분 \*광주신구산업회 카페 광주호선회 ☎ 010-461-2166, 010-6702-9796 ☎ 010-6462-501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약구독 (062) 220-0550